

大學의 自律化와 傳統

金 恒 洙

(同德女大 國史學科)

오늘날 대학 사회는 自律化와 民主化를 위한 진통을 계속하고 있다. 대학이 대학으로서의 자율성을 가지고 대학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당연한 命題일 것이다. 그렇지만 대학의 자율화와 민주화가 표방된 지 수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도 대학 사회는 昏迷를 거듭하고 있다. 몇몇 대학에서는 나름대로의 자율화와 민주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지만, 많은 대학들은 여전히 많은 갈등 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들에서는 오늘도 학내의 갈등이 심각할 정도로 표출되고 있다.

대학에 관련된 사람이면 누구나 대학의 자율화와 민주화의 當爲性을 인정할 것이다. 대학의 자율화와 민주화는 대학이 學問 研究와 學生 敎育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고 일반 사회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대학의 올바른 位相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율화와 민주화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각각의 입장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文教 當局은 풀치 아픈 일들을 자율이란 이름 하에 각 대학에 방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일부 대학 運營者들은 단순히 문교부의 통제·간

섭을 벗어나는 것만으로 자율화가 실현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또 教授들 간에는 교수의 역할과 위상에 대하여 보수적인 입장과 진보적인 입장 등 개인에 따라 의견의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學生들은 학생들대로 기존의 틀과 통념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방법에 의한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대학의 자율화와 민주화란 명제는 내부적인 濾過過程이나 일정한 討論도 없이 실증되어 버리고 대학 사회는 또다른 갈등과 불신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수는 100 여개를 상회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들은 50년 미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대학들은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도 커다란 성장을 보여 왔으며, 많은 고급 인력을 배출하여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사실 50년의 역사는 그렇게 길다고 할 수 없지만, 결코 짧지도 않은 시간이다. 우리 대학들이 쌓아 온 수십 년의 年輪은 각 대학이 독자적인 傳統을 축적해 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오늘날 각 대학에서 자율화와 민주화가 세삼스럽게 주장되는 이유는

그동안 대학 내외의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의 대학들이 독자적인 대학 전통을 갖지 못한 데에도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간의 대학 내외의 상황들은 대학들로 하여금 學問的 力量과 彈力性을 갖추지 못하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외부의 가벼운 충격에도 쉽사리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끊임없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의 대학들은 너무도 대학 외부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왔다.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는 대학 사회에 自由와 知性을 보장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에 의한 획일성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장기적인 계획 아래 교육 정책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때 그때의 정치 권력의 필요에 의하여 시행되고, 대학 내부의 중요한 일들도 대학 구성원 자신의 의사보다 문교 정책에 따라 권위주의적으로 결정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대학의 獨自性과 自律性은 왜소할 정도로 위축되고 많은 대학들이 독특한 學風이나 傳統을 쌓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80년대초의 卒業定員制와 이로 인한 대학 내의 갈등이 파행적인 문교 행정에 기인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아마도 '80년대초의 교육 개혁은 각 대학들이 좋지 않은 여건에서도 나름대로 쌓아 온 독자적인 영역들을 일거에 허물어 버렸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대학의 자율화, 대학의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시급히 요청되는 것도 이와 같은 그간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 정책의 부당성만을 지적하는 '막연한' 대학의 자율화로는 오늘날 대학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현존하는 대학 내부의 갈등들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내부적인 自生力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적인 통제만을 없앤다고

모든 문제가 해소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학의 자생력은 여러 측면에서 언급될 수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 중의 하나는 대학 내부 構成員간의 葛藤 解消와 一體感의 確保에 있다. 이와 같은 대학 내부의 민주화에서 자생력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대학의 구성원은 크게 재단 등의 運營者,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教授, 교육을 받는 學生,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行政 職員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대학 구성원의 의사가 충분히 수렴·반영되어 구성원 간에 동질적인 일체감이 조성될 때 대학은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영역을 갖고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전반적인 대학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일부 사립대에서 문제가 되는 재단의 비대화나 비민주적인 운영 등은 대학이 진리 추구의 場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기능을 하여 왔다. 대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학문 연구와 학생 교육일진대 대학이 교수와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되기보다는 다분히 재단의 필요 또는 운영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도 없지 않았다. 그리하여 교수들은 재임용제 등의 제도에 의하여 그 활동이 위축되어 왔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에 대한 별다른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지 못한 채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20대 초반의 4년을 보내 온 것이다. 따라서 근래에 들어 활발해진 각 대학의 教授協會나 職員 勞組 등의 활동은 이러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대학의 성장 가능성은 대학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외부로부터의 대학 자율화와 대학 내부의 민주화는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대학의 자율화는 대학 내부의 민주화를 전제로 할 때 진정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즉, 내적으로 학교에 몸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의

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시행될 때 진정한 대학 자율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 대학 구성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民主的인 節次에 의해 대학의 제반 행정 이 운영된다면, 각 대학은 그 대학의 특성에 맞는 교육 여건과 學風으로 자율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80년 이후에 우리의 대학들은 外形的·量的으로 급격한 成長을 이루어 왔다. 이제는 대학 수도 100여개를 상회하게 되었으며, 대학생 수도 '80년에 40만 명 정도에서 10년이 지난 지금은 100만 명을 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학의 외형적·양적인 성장이 그에 상응하는 質的인 發展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확대된 대학 규모에 걸맞는 올바른 學校運營 方式도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으며 教育環境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 대학 내부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상호 불신감이 만연되었다.

이제 우리의 대학들도 새로운 각오를 다져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야 할 때가 왔다. 오늘날과 같이 대학의 권위가 실추되고 대학내 불신감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학이 사회에 기여할 부분도 한계에 이를 것이다.

대학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 운영자들이 과감한 改革을 추진해야 한다. 과감한 개혁으로 대학의 새로운 傳統을 만들어 가야 한다. 대학의 새로운 전통은 대학의 自律化와 民主化에 기반한 과감한 改革을 통해서만 창조될 수 있다. 또한 대학 내부의 민주화에 기반한 자율화가 아니면 오늘날 대학 사회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대학의 제반 행정이 이루어지고, 대학내 각 부서들이 고유의 권한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制度的·實質的 改革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화에 기반한 자율화야말로 오늘날의 대학이 새로운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이다.*